

[방산정보] 호주 국방전략 검토서 발표

날짜 : '23년 5월 2일	무역관명 : 시드니	작성자 : 정은주 대리	
		TEL : 61282334031	EMAIL : joan@kotra.org.au

□ 배경

- 인도·태평양 내 미-중 갈등 심화에 따른 주변국들의 국방력 강화 추세
 - 동맹국과의 국방, 외교 협력 또는 지리적 이점이 무의미해진 안보 상황에 따라 자주 국방력 강화 방안 및 부문별 예산 투입 비중에 대한 점검 요구
 - 미국은 여전히 호주의 국방 부문 최대 협력국이나 더 이상 역내 단일 지도 국가가 아니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국방전략 수립이 필요
- 무력 전쟁뿐만 아니라 호주 국익을 저해하는 위협·침범에 대한 저지력 요구
 - 안보를 갖추어야 하는 영역이 해상, 육상, 항공에서 우주, 사이버로 확장
 - 전 세계적인 비대칭(Asymmetric) 전력 강화 추세에 따라 장거리 미사일, 핵잠수함, 새로운 군사기술의 선제적 확보가 요구
- '22년 5월 노동당 정권 교체 후 두 번째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국방전략 재검토 시행
 - 호주 알바니즈(Albanese) 총리는 향후 10년간의 호주 국방전략 재수립을 위해 전 국방부 장관 및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했고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호주 최대의 국방전략 개편을 예고

□ 주요 내용

- (개요) 호주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해상 전투력 확보를 중심으로 전력 개편 (Balanced, Joint Force → Focused, Integrated Force)
 - 기존 구조는 현재 시점의 국내외 전략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 미부합하여 육상, 항공, 해상 부문 균형 있는 전력 배치보다 집중·통합의 전력 배치가 필요
 - 이를 위해 확보해야 할 핵심 군사력(Capabilities)은 하기와 같음
 - ① 수중전(Undersea warfare)에 대비한 유무인 전력 증강
 - ② 장거리 표적이 가능하도록 전력 향상 및 통합

- ③ 모든 안보 영역(해상, 육상, 항공, 우주, 사이버)의 장거리 공격 능력 향상
 - ④ 수륙 양용의 복합 무기형(Amphibious-capable combined-arms) 육군 시스템 확보
 - ⑤ 해상 통제 작전 및 현지화된 해상 통제 가능한 해군 전력 강화
 - ⑥ 원정 항공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공군 네트워크 전력 강화
 - ⑦ 공군 및 미사일 전력의 향상 및 통합
 - ⑧ 안정적인 장거리 병참 시스템(Expeditionary theatre logistics system) 구축
 - ⑨ 통합 전력(Integrated force)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병참 명령·통제 구조
 - ⑩ 북부 지역 기지 네트워크 개발
- 이를 위해 통합 투자 프로그램(Integrated Investment Program, 국방 관련 투자 및 지출)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기존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프로그램들도 수정 또는 취소될 가능성 존재
 - 해당 검토 결과 제안된 사항들은 향후 10년간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을 권고하고 호주 정부는 이를 2024년 국가 국방 전략(National Defence Strategy)에 반영, 이후 격년마다 업데이트할 계획
 - (1단계) 2023-2025년, 현재 국방 조직 및 전략에 긴급 투입해야 하는 장거리 미사일 획득 등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 달성
 - (2단계) 2026-2030년, 동 검토를 통해 제안한 대로 중점·통합형 국방 조직으로 개편 실현 및 이를 위한 필수 군사력 확보
 - (3단계) 2031년 이후, 5개 호주의 안보 영역 내(해상, 육상, 항공, 우주, 사이버) 통합형 국방 실현
 - 핵 잠수함 도입 등 미·영 AUKUS 중심 협력은 지속될 것이며 일본, 인도,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역시 중요
- (해상) 호주 인접 지역 안보, 해상 통신 및 교역 안보에 최적화가 요구
- 재래식 무장 및 핵 잠수함, 전투함대 및 해상/육상 장거리 미사일 확보가 요구되며 다수의 소형 수상 선박 확보로 대양해군 전투 또는 장거리 미사일 타격에 대비
 - 2023년 3분기 말까지 수상 전투 함대(Surface combatant fleet) 확보에 대한 검토 및 구체적인 방안이 마무리될 예정
 - 자국 내 전투함 건조, 유지 및 보수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
 - 현재 남호주 Osborne, 서호주 Henderson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 건조 예정이나 향후 동부 해안 지역에서도 핵 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야 할 것
- (육상) 장거리 타격력 확보 및 호주 육해공 연안 군사훈련에 적합하도록 개선 요
- 근접전투를 위한 단일 기갑 연합 무기 여단 중심으로 북부 지역에 배치 요
 - 이를 위해 중형 이상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연안 기동 선박 확보*가 요구

- * 추진 LAND 8710 Phases 1-2, Army littoral manoeuvre vessels
 - 장거리 타격력 확보를 위해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(HIMARS), 정밀 타격 미사일(PrSM, 단거리 탄도/프리즘 미사일) 확보*
 - * 추진 LAND 8113 Phases 2-4, Long-Range Fires(HIMARS)
 - 추진 LAND 4100 Phase 2, Land-Based Maritime Strike
 - 보병전투장갑차 획득*은 필요하나 기존의 450대에서 129대로 축소하고 2차 자주포 추가 도입**은 취소해 HIMARS 및 장거리 미사일 획득을 위한 재정 확보
 - * 축소 LAND 400 Phase 3, Land Cmbat Vehicle System(Infantry Fighting Vehicle)
 - ** 취소 LANG 8116 Phase 2, Protected Mobile Fires(Self-propelled howitzers)
- (항공) 북부준주 내 공군 기지 배치,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·감시·정찰 강화
- 근접전투를 위한 단일 기갑 연합 무기 여단 중심으로 북부 지역에 기지, 항구, 병영의 네트워크 개발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
 - 육상 및 해상 전투 지원이 가능한 항공기* 및 장거리 미사일** 확보
 - * F-35A Joint Strike Fighter, F/A-18F Super Hornet aircraft, MQ-28A Ghost Bat, UH-60M Black Hawk, AH-64E Apache
 - ** F-35A와 연계된 합동 타격 미사일(Joint Strike Missile)
 - 항공 주유, 중대형 전투기, 훈련 시스템 및 공군 인력 강화
 - QLD주 타운스빌(Townsville)에서 Boeing Australia, NSW주의 시드니와 나우라(Nowra), QLD 남동부 지역에서 Sikorsky Australia가 서비스 기지로 역할 가능
- (우주) 지휘체계를 국방부 내로 통합*하고 일반 산업계 및 타 국가와 협력 강화
- * 우주 군사 지휘단(Space Command), 2023년 7월 1일부로 합동 역량 그룹에 편입(Joint Capabilities Group)
 - 해당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훈련 및 직업적 체계 확립이 필요
 - 관련 역량 획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며 이미 판매 중인 상업용 제품 구매도 고려 가능
- (무기) 유도 무기, 폭발물(GWEO)의 충분한 획득 및 국내 제조역량 확보
- 단기 내 GWEO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 기관 및 담당자 지정 요
- (미사일) 공중 및 미사일 통합 방어(IAMD) 능력을 신속히 확보
- 적절한 명령·통제 시스템, 센서, 전투기 및 육해공 미사일 간 연합이 필요
 - 특히, 중장거리, 초고속 미사일 역량 확보가 시급하며 개발이 완료되어 이용 중인 미사일도 필수 고려 대상
- (첨단기술) 국방 전력상 우위를 갖추기 위해 첨단기술 확보가 중요
- Advanced Strategic Capabilities Accelerator(ASCA)를 통해 비대칭형 국방 전력을

확보하고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Group을 통해 재정 및 자원의 적절한 투입 실현

- **(병참)** 호주 남부에서 북부 기지로 연결되는 물자 노선 강화
 - 도로, 철로, 해상 및 항공 인프라를 통한 안정적인 필수물자 저장 및 배급
 - 호주의 지리적 위치가 글로벌 방산 공급망 상에서 단점으로 작용하는바, 주요 무기를 국내에서 제조, 공급하는 방향 고려
- **(연료)** 재생에너지를 통한 군사 연료 확보 및 북부로의 공급망 개선
 -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로 자국 내에서의 안정적인 연료 공급 실현
 - 수입 연료 공급원 및 운송 경로, 국내 육해상 연료 저장 및 운송의 장단점을 파악해 위급 상황에서 민간 용도 보다 안보 용도로 우선 공급
- **(인프라)** 국가 재난 발생 시 국방 자원 투입 축소 및 민간 인프라의 건설한 구축 필요
 -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시 국방부 지원으로 전력 공백이 우려되고 계속해서 국방 자원에 의존할 수 없어 대안 마련이 요구
- **(조달)** 전략적 위험 요소 관리 중심으로 신속한 역량 획득구조로 개편
 - 최적의 대안,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절차 준수를 중요시하며 호주 국내 업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포함되어야 했으나 이러한 점들이 역량 획득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
 - 이에, 전략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달 품목은 그 중요도에 관계없이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단 시간 내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역량을 갖추었다면 (Value for money)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환. 이러한 변화는 2024년까지 반영하는 것을 목표
 - 호주 국내 업체로부터의 조달은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고려
- **(예산)** 현재 연 A\$ 480억의 국방 예산에 향후 4년간 A\$ 190억 추가 예상
 - 국방 전략 개편안에 따라 예산 증대가 필요할 것이며 우선 획득이 요구되는 프로젝트, 프로그램 및 활동에 예산 재편성이 불가피

□ 시사점

- 호주 국내 여론은 국방 전략 검토서이나 보다 명확한 전략이 보완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우주 부문 전력 강화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거론되었음

- 2023/2024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국방 예산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 전체 국방 예산은 국민 총생산 2%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
- 해상 전력 우선 강화에 따라 역량 확보의 우선순위 프로젝트에서 육상 전력 강화 프로젝트가 축소 또는 취소되어 우리 기업들의 호주 방산 수출 확대에 차질 우려
- 방위산업 조달 관련 정책 및 운영에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해외 납품이력, 첨단 기술력,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납기를 단기간 내 준수할 수 있는 업체라면 수출,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
- 호주 방위산업 수출,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은 해상 전력 우선 강화 프로젝트, 첨단 기술 기반의 방위산업 품목, 통신·운송·훈련 등 다양한 부문의 전력 인프라 확충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 끝.

자료 : 호주 연방정부, 국방부 자료 종합